

 POSRI 보고서

창조경제, 융합으로 새 시장 연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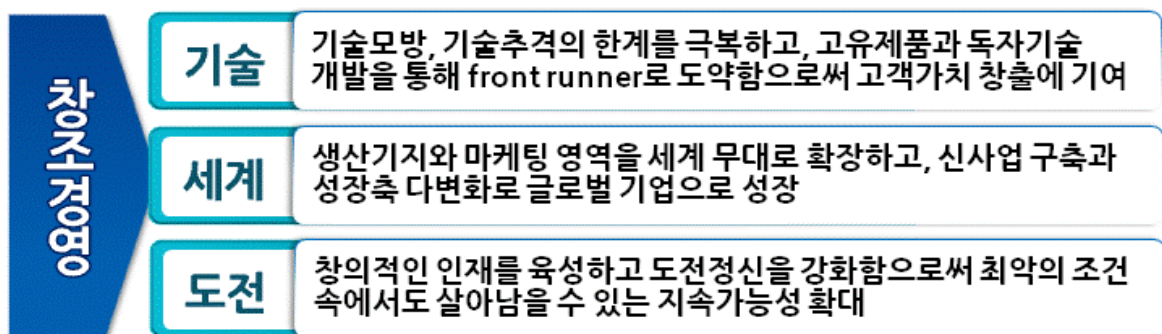
박동철 상무보, 미래창조연구실 (dcpark80@posri.re.kr)

[목 차]

1. 창조경제의 개념 및 배경
2. 창조경제의 주요 내용
3. 창조경제 관점에서 살펴본 포스코의 창조경영

Executive Summary

-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GHnomics의 핵심 전략이자 목표
 - 넓은 의미에서 창조경제는 기존의 성장 방식을 타파하고, 추격·모방형 경제에서 선도·창의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것
 - 좁은 의미에서 창조경제는 첨단 과학기술 및 ICT 등을 기반으로 산업/기술간 융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
- 5대 국정 목표의 1순위가 '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'이며, 이를 위한 6개 추진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·중소기업·과학기술 등
 - 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③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④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⑥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
 - 산업 관점에서 본 창조산업(군)은, 창조형 서비스산업(소프트웨어 등), 융복합기술형 제조업, 고부가가치산업(원전 및 해양플랜트 수출 등), 생활형 복지사업의 산업화 등임
- 포스코는 기술개발, 시장개척, 인재육성 등과 관련하여 창조경영 추진 중
 - 시장선도적 기술 혁신, 글로벌 경영체제 확립, 창의적 인재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



- 포스코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조화를 이루어 더욱 창의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방안 수립
 - 기초연구에서 상품개발 과정에서 창의성 발휘 문화 구현, 업무 수행 과정에 TRIZ 적용, 포레카 활동 등을 더욱 확대 및 강화
 - 포스코는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곧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

1. 창조경제의 개념 및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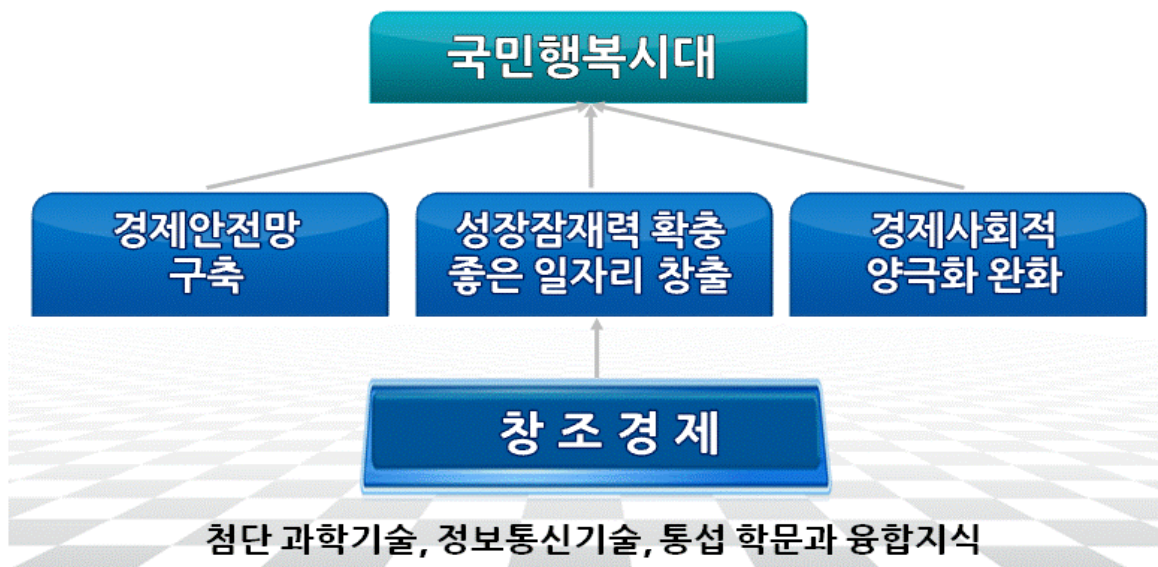
□ 창조경제란?

“통섭 학문에 기반을 둔 상상력과 창의성, 융합지식,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,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” (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13.2.5)

□ 창조경제는 한국 경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GHnomics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매개

- 박근혜 정부는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성장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
 - 추격·모방형 경제로는 저성장을 탈피하기 어렵고, 대기업 위주 및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하며, 고용없는 성장은 안된다고 역설
 - 넓은 의미에서 창조경제는 기존의 성장 방식을 타파하고, 선도·창의형 경제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
-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비전인 국민행복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GHnomics의 핵심
 - 국민행복 시대의 핵심 과제는 경제안전망 구축,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, 그리고 성장잠재력 확충 및 좋은 일자리 창출임
 - 좁은 의미에서 창조경제는 이 중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

< 국민행복 시대와 창조경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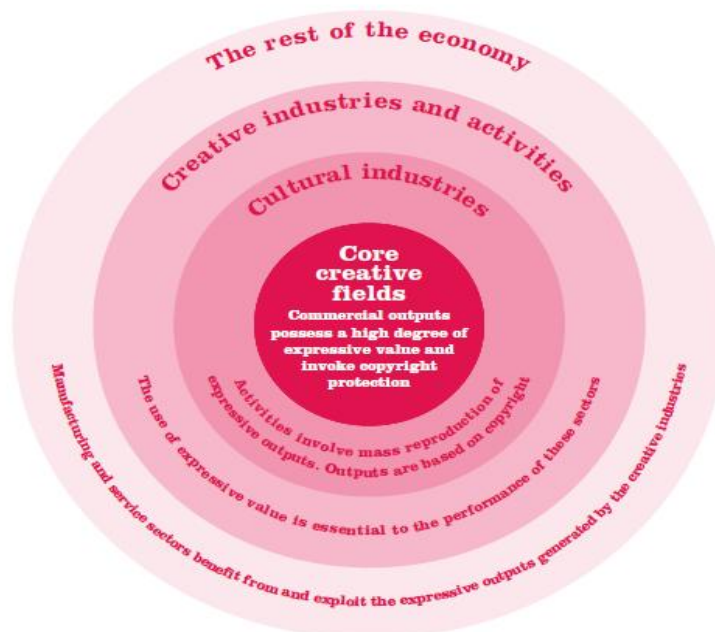


- 박근혜 정부는 다른 나라 혹은 기관의 용례와는 달리 창조경제를 경제 발전 패러다임을 아우르는 보다 거시적인 개념으로 사용
 - 주로 산업(군)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을 넘어서서,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 발전 패러다임 내지 정책을 지칭
 - 특히 첨단 과학기술 및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적·창의적인 경제를 창출하고 이를 운용하는 방식도 내포
- 다른 나라 및 기관의 창조경제(Creative Economy) 용어 사용은 영국의 DCMC(Department of Culture, Media and Sport)와 UNCTAD가 대표적
 - DCMC는 “개인의 창조성과 스킬, 재능 등에 기반한 산업 내지 지적재산권의 창출과 이용을 통해 부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산업”으로 정의
 - UNCTAD는 “경제를 성장·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창조적 자산 혹은 그에 기반한 산업”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. 즉 창조적 산업(creative industries)은 본원적 투입으로서 지적 자원을 사용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창출과 생산 및 분배의 전 과정으로 정의

※ 창조적 산업의 예시

- 전통적 산업: 대중예술, 페스티벌, 음악, 서적, 미술, 행위예술 등
- 기술집약적 산업: 영화, 방송, 디지털 애니메이션, 비디오게임 등
- 서비스집약적 산업: 건축 및 광고 서비스 등

<영국 창조산업의 개념도>



※ 출처: Staying ahead: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UK' creative industries, Department for Culture, Media and Sports, June 2007

2. 창조경제의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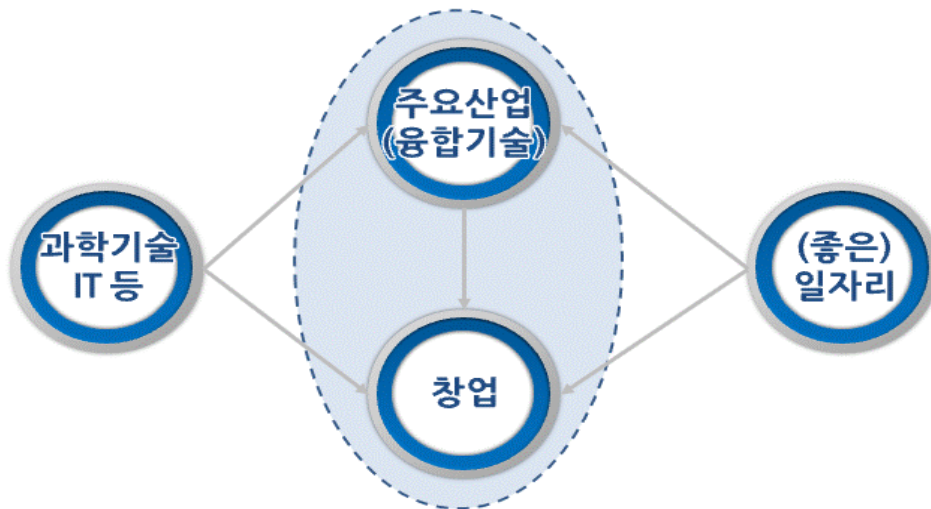
□ 박근혜 정부 5대 국정 목표의 1순위가 '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'

- 이를 위한 6개 추진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, 중소기업, 과학기술 등임
 - 6개 추진 전략은 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③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④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 기술 발전 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⑥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임

□ 산업 재편 및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본 창조경제의 구성요소

- 한국 경제의 질적·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창조경제는 크게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짐
 - 즉 ① 첨단 과학기술과 ICT 등을 기반으로 하여 ② 기존 주력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③ 새로운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④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임

< 창조경제의 주요 구성요소 >



- 이 중 창업 부문에서의 키워드는 벤처기업과 청년 등임
 - 이는 주로 이스라엘의 경험을 벤치마크한 것으로써, 예를 들면 대학 창업 기지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,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등임
- 창조경제에 어울리는 이른바 창조산업(군)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
 - 창조형 서비스산업: 소프트웨어, 물류, 관광, 통신, 문화예술 등
 - 융복합기술형 제조업: 스마트산업, 시스템산업
 - 고부가치산업: 원전 및 해양플랜트 수출, 항공우주산업 등
 - 생활형 복지사업(사회복지, 의료건강 등)의 산업화

〈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과학부 구성과 기능〉

(설립 취지)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창조경제의 기획 및 실행

- 장기적인 국가 경제 ‘먹거리’ 발굴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
-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일자리 창출
- 이를 통한 국가 잠재 성장력 향상 등

(조직 구성) 2차관·3실·7국·1대변인·67과 600여 명으로 구성

- 최종 조직안은 아직 조율 중이나 2월 18일 현재 조직안은 당초 예상안에 비해 다소 축소된 상태

(기능)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부문과 방송통신위원회,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 등을 통합

- 당초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R&D 기능, 정보통신기술(ICT), 디지털 콘텐츠, 우정사업 업무 등을 망라하던 기능이 다소 축소
- R&D 정책 및 집행, 범정부 R&D 조정 기능 등 강화

(2월 21일 현재)

3. 창조경제 관점에서 살펴본 포스코의 창조경영

□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경제 발전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기업들도 조화를 이를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

○ 기업 수준에서는, 과학기술 및 ICT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

- 사내벤처, 창의적 경영기법 등을 활용 창조경제의 주요 과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필요

□ 포스코는 기존에 창조경영을 추진해 왔음

○ 시장선도적 기술 혁신, 글로벌 경영체제 확립, 창의적 인재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오고 있음

- (기술) 기술 모방, 기술 추격의 한계를 극복하고, 고유제품과 독자기술 개발로 follower에서 front runner로 도약함으로써 고객가치 창출에 기여
- (세계) 생산기지과 마케팅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하고, 신사업 구축과 성장축 다변화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
- (도전)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도전정신을 강화함으로써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가능성 확대

- 창조경제의 주요 과제인 기술 기반의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,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, 창업국가 코리아 구현 등과도 부합
 - 기술 기반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미래 신소재 연구 개발 및 기반 인프라 구축 강화해 오고 있음
 - 스펙 초월 채용과 관련해서는 통섭형 인재 육성 및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(예: 포스코 문리통섭 육성 프로그램 등)
 - 창업국가 코리아 구현과 관련해서는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등을 운영해 오고 있음
- 포스코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조화를 이루어 더욱 창의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방안 수립 요구됨
- 첨단기술과 ICT 기반, 그리고 창의적 경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확충에 기여 필요
 - 예컨대 포스코의 R&D 시스템 및 프로세스(기초연구-응용연구-산업화 연구-상품 개발 등)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
- 임직원의 창의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강화
 - 이미 시행하고 있는, 업무에의 TRIZ 적용, 포레카 활동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점검
 - 임직원의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발굴 및 지원 체계 확립
- 포스코는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곧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
 - 창조경제와 마찬가지로 창조경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통섭형 교육(HRD)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
 - 특히 소통을 통한 다양성의 존중과 조화가 창의성 증대의 필요조건인 만큼, 조직·부문간 소통 증대를 위한 ‘열린 세미나’를 활성화할 필요
 - 또한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(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같은 것을 기업에서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)
 - ※ 요즈마 펀드: 자본이나 담보능력이 없이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출발하는 벤처기업인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벤처 캐피탈